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네티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PGA ‘별들의 전쟁’ 프레지던츠컵 오늘 개막



27일 오후부터 나흘 동안 캐나다 몬트리올의 로열 몬트리올 골프장에서 열리는 미국팀과 유럽을 제외한 세계연합팀과의 남자골프 대륙대항전인 프레지던츠컵 개막에 앞서 26일 미국팀(왼쪽)과 세계연합팀 선수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경주는 오른쪽 사진 왼쪽에서 네번째. /로이터=연합뉴스

대륙간 ‘골프 전쟁’

‘탱크’ 최경주 발진

‘완도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세계 양대 대륙대항전인 프레지던츠컵 골프 대회에서 타이거 우즈(미국)의 대항마로 나선다.

유럽을 제외한 세계 각국 선수로 구성된 국제연합팀 12명이 미국 선수 12명과 포석, 포블, 싱글매치플레이 방식으로 맞붙어 우승컵을 다투는 프레지던츠컵은 미국-유럽 대항전인 라이더컵과 함께 양대 대륙대항전으로 꼽히는 빅 이벤트이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프레지던츠컵은 27일 오후부터 나흘 동안 캐나다 몬트리올의 로열 몬트리올골프장에서 열린다.

2003년에 이어 두 번째 출전이자 최경주의 위상은 4년 전과 판이하다.

당시 최경주는 세계연합팀 선수 선발 포인트에서 10위 밖으로 밀려나 단장이 뽑는 ‘와일드카드’로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차지해 당당히 세계연합팀 일원이 됐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두 차례 우승컵을 거머쥐고 세계랭킹 8위까지 올랐던 최경주는 4년 전과 달리 세계연합팀의 간판 선수나 다름없다.

세계연합팀을 구성한 어니 엘스(남아공), 비제이 싱(피지), 아담 스콧, 조피 오길

미국팀 VS 유럽 제외 연합팀 맞대결
‘연합팀 에이스’ 최경주, 우즈 대항마

프레지던츠컵 어떤 대회
라이더컵과 세계 2대 대륙대항전
적년 개최...출전선수엔 특혜 부여



(프레지던츠컵 우승컵)

비, 스투어트 에플비, 닉 오헌(이상 호주), 레티프 구센, 로리 사바티니(이상 남아공), 앙헬 카브레라(아르헨티나), 마이크 웨어(캐나다) 가운데 최경주보다 올해 성적이 뛰어난 선수는 없다.

상위 최경주와 같은 2등을 거머쥐며 최경주(5위)보다 2계단 높은 상금랭킹 3위에 올랐지만 시즌을 결산하는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4개 대회에서 최경주에 한참 뒤졌다.

세계랭킹 10위의 최경주보다 랭킹이 높은 엘스(5위), 스콧(6위), 사바티니(8위) 역시 올 시즌 성적만으로 따지면 최경주보다 한 수 아래다. 이번 대회에서 최경주는 세계연합팀의 ‘에이스’로 미국팀 간판 선수인 우즈나 필 미켈슨, 짐 퓨릭 등을 꺾을 ‘카드’로 대접받을 전망이다.

특히 지금까지 6차례 대회에서 단 한번 미국을 꺾었을 뿐 4대1무승부로 열세였던

세계연합팀은 우즈가 출전한 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을 차지한 최경주에게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세계연합팀 단장 캐리 플레이어는 “최경주는 이미 2005년 대회 때 능력을 인정받았다”면서 “이번 대회에서는 그때보다 더 나은 실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우즈와 미켈슨, 퓨릭 등 세계랭킹 1~3위에 포진한 ‘삼두마차’에 페덱스컵 플레이오프가 낳은 스타 스티브 스트리커가 핵심 전력이다.

작년 라이더컵에서 맹활약했던 마스터스 챔피언 잭 존슨과 스코트 버틀랜드, 데이비드 톰스, 스투어트 싱크, 우디 오스틴 등 베테랑 선수와 마스터스 챔피언 잭 존슨과 헨터 메이헌, 찰스 허웰3세, 루카스 클로버 등 쾌기의 젊은 선수들이 고루 배치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완도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출전하는 프레지던츠컵은 라이더컵과 함께 세계 양대 대륙대항전 골프대회이다.

라이더컵은 유럽 국가 연합팀이 미국팀과 겨루는 대회이지만 프레지던츠컵은 유럽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출신 선수들이 미국팀과 맞선다.

1994년 창설돼 격년제로 치러지고 있으며 역시 2년마다 한 번씩 있는 라이더컵이 개최되지 않는 해에 열린다.

라이더컵은 홀수해, 프레지던츠컵은 짝수해에 열렸지만 2001년 열릴 예정이던 라이더컵이 9.11 사건으로 한 해 미뤄지면서 라이더컵이 짝수해, 프레지던츠컵은 홀수해로 개최 연도가 바뀌었다.

미국 선수들은 유럽팀과 유럽을 제외한 국제연합팀과 해마다 1차례씩 대항전을 갖는 셈이다.

프레지던츠컵 대표 선수가 되면 메이저 대회를 비롯한 특급 대회에 자동 출전권을 받는 등 여러 가지 특권이 따른다.

출전 선수는 양팀 모두 1년여 동안 대회 성적에 따라 부여하는 포인트를 합산해 10위까지 자동 선발하고 2명씩 와일드카드를 단장이 뽑는다. 최경주는 2005년 대회 때 와일드카드로 한국 선수 최초로 이 대회에 출전했다.

경기 방식은 양팀 12명씩의 선수가 포블, 포삼 등 팀 매치플레이와 싱글 매치플레이를 펼쳐 승리한 선수에 1점, 무승부에는 0.5

점씩 부여한 뒤 전체 선수 점수 합계로 우열을 가린다.

역대 전적에서는 미국이 4승1패1무승부로 앞서고 있다.

이번에 다섯 번째 출전하는 타이거 우즈(미국)는 무려 10승을 올려 세계연합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필 미켈슨, 짐 퓨릭 등도 출전 경험이 풍부하고 역대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

1998년 호주 대회 때 단 한 번 미국을 꺾었던 세계연합팀에는 어니 엘스(남아공), 비제이 싱(피지), 레티프 구센(남아공) 등이 출전 경험이 많다.

대회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개최지 국가행 정수반이 대회 명예의장을 맡는다.

제럴드 포드, 조지 부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등 4명의 미국 대통령, 타보 음벤키 남아공 대통령과 존 하워드 호주 총리 등이 역대 명예의장 감투를 썼다.

올해 명예의장은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맡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LPGA ‘나비스타’ 오늘 개막

박세리·김미현 등 출전

새로운 ‘골프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오랜만에 미국여자 프로골프(LPGA) 투어 무대에 돌아와 사상 첫 시즌 상금 300만달러 돌파에 도전한다.

오초아는 27일 밤(이하 한국시간)부터 미국 앨라배마주 프렛 필드의 RTJ 골프트리(파72·6천632야드)에서 시작되는 LPGA투어 나비스타 클래식에서 출전한다.

지난달 27일 끝난 세이프웨이클래식에서 우승한 뒤 투어 대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오초아는 1개월여 만의 복귀 무대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기에 부족함이 없다.

올해 상금, 평균 타수, 그린 적중률 등 사실상 전 부문에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오초아는 휴식 전까지 3연승의 상승세를 타 그 기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총상금 130만달러인 이번 대회에서 우승 상금 19만5천달러를 보낼 경우 오초아는 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상금 300만 달러를 넘는 LPGA 선수가 된다. 오초아가 올 시즌 벌어들인 상금은 289만 1천590달러다.

시즌 5승에 도전하는 ‘코리아 신시스터’가 뜻을 이룰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박세리(30·CJ), 김미현(30·KTF) 등 말안니들은 빠졌지만 신인왕 후보인 안젤라 박(19)과 박민비(19), 김인경(19) 등이 개인 첫 승에 도전장을 냈다.

올해 우승 경험이 있는 김영(27), 이선화(21·CJ)도 이번 대회에서 2승 사냥에 나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우즈 3년 연속 ‘올해의 선수’

美 프로골프협회 선정...통산 아홉번 수상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프로골프협회(PGA) ‘올해의 선수’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PGA 올해의 선수상은 대회 성적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해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선수에게 주어지는데 2007 시즌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남은 대회 결과에 관계없이 우즈가 수상자로 결정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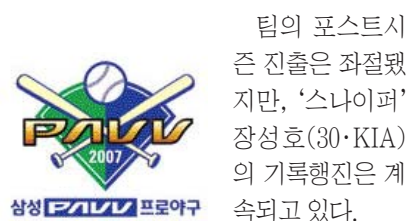
우즈가 PGA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것은 프로 전향 이후 11시즌 동안 무려 9번째다. 1997년 처음 이 상을 받기 시작한 해 1998년 마크 오메라(미국), 2004년 비제이 싱(피지)에게만 잠시 자리를 양보했던 우즈는 이로써 3년 연속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우즈는 이번 시즌에도 16개 대회에 나와 7승을 거두고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13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획득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 페덱스컵 우승으로 1천만 달러의 우승 상금을 예약해놓고 은퇴 후 반기로 돼 있는 페덱스컵 우승 상금을 빼고도 1천86만7천52달러의 상금을 벌어들여 상금 부문 1위도 놓치지 않았다.

PGA 올해의 선수상은 선수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과는 다른 상이지만 대개 결과가 일치해 1992년부터 계속 한 선수가 두 개의 상을 휩쓸고 있다.

장성호 10년 연속 2루타 20개

KIA, 두산 5-1 제압



장의 포스트시즌 진출은 좌절됐지만, ‘스나이퍼’ 장성호(30·KIA)의 기록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장성호는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26일 열린 2007프로야구 광주 두산전에서 1-0으로 앞선 3회 말 선두 타자로 나서 우중간을 꿰뚫는 2루타를 때려 내며, 삼성 양준혁(2002년 9월 13일)에 이어 프로통산 2번째로 10년 연속 2루타 20개를 기록했다.

올 시즌 ‘전인미답(前人未踏)’의 10년 연속 3할타율에도 도전중인 장성호는 이날 4타수 2안타를 터트리며 종전 타율(0.283)을 0.285로 끌어올렸다. 장성호는 앞서 25일 광주 두산전에서 장종훈(한화코치)과 양준혁(삼성)에 이어 프로통산 3번째로 ‘300 2루타 클럽’에도 이름을 올렸다.

장성호의 기록행진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장성호는 26일까지 통산 796타점을 기록, 800타점(11번째)달성도 사정권에 두고 있다.

KIA는 이날 장성호의 맹타 등 장단 11안타와 선발 전병두의 5이닝 2피안타, 3볼넷, 3탈삼진 1실점 호투로 6연승을 달리던 2위 두산을 5-1로 꺾고 7위 현대와의 승차를 2.5개 임차로 좁혔다.

1회와 3회 각각 1점씩을 뽑아낸 KIA는 2-1로 앞선 7회말 선두타자 이용규의 중전안타와 김중국의 연속안타로 만든 무사 1, 3루에서 이현근의 좌측 펜스를 맞는 2타점 2루타로 2점을 보았다. KIA는 계속된 공격에서 빅리거 출신 최희섭의 좌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로 1점을 추가, 승부에 쉼을 박았다.

마운드에선 선발 전병두에 이어 손명인이 2이닝동안 탈삼진 2개를 속아내며 무실점으로 잘 막았고, 마지막 2이닝은 특급 마무리 한기주가 무실점으로 정리했다.

앞으로 8개일을 남겨놓은 최하위 KIA는 27~28일 광주에서 현대를 상대로 끝판왕을 위한 2연전을 치른다.

/별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프로야구 11년만에 관중 400만명 달성

2007년 프로야구가 한가위 연휴 마지막 날 11년 만의 400만 관중을 달성했다.

전날까지 398만9천833명을 동원한 프로야구는 26일 잠실(1만2천851명), 광주(2천23명), 대전(6천714명)구장에 총 2만1천588명이 찾아 479경기에 401만1천421명(평균 관중 8천375명)을 유치, 1996년 449만8천82명을 동원한 이후 11년 만에 관중 400만명 시대를 재현했다.

4월6일 개막전에서 5만25명을 끌어 모으며 400만명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딛던 프로야구는 시즌 초반 롯데의 선전으로 구도(球都) 사직구장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고 5월20일에는 올해 최다 관중이자 역대 하루 관중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8만8천624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동기간 대비 총 관중은 288만3천3명보다 112만8천418명 늘었다. 8개 구단 모두 증가세를 기록한 가운데 2000년 창단 후 처음으로 한국시리즈 직행을 앞둔 SK 와이번스가 전년 대비 98% 증가한 64만6천576명을 동원, 최고 증가세를 나타냈다.